

# 야생동물들 '빌딩 숲' 서 길을 잃다

### 광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지난해 754건 구조...4년새 3배나 늘어 구조 동물 대부분 조류...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260여건 달해 전남구조센터도 5년간 4100여마리...투명유리창 등 개선 시급

광주시 동구 학동 도심에서 지난해 8월 화려한 깃을 가진 어린 새가 건물 주변에서 날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새는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였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어미를 잃고 도심에서 헤매던 팔색조를 안전하게 구조해 무등산 자락에서 자연으로 돌려 보냈다.

인구 144만명에 달하는 광주에서도 야생동물이 도심 한복판이나 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무등산 등지에서 길을 잃고 도심으로 내려왔거나 지나 건물에 부딪혀 다친 야생동물들이다. 특히 광주 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야생동물 보금자리가 줄고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추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남에서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각종 야생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오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구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날씨가 풀려 야생동물이 본격적인 먹이활동과 함께 번식기에 들어가면서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순천시 장전동에서는 사슴이 돌아다니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여수시 화강동에서 너구리가 발견됐고 7일에는 보성군에서 황조롱이가 날개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4일 목포에선 매장 안에 고라니가 침입해 한바탕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구조센터)에 따르면 광주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2019년 249건에서 2020년 481건, 2021년 577건, 2022년 7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원 후 지난 4년 동안 광주시 구조센터가 구조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은 269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만 한달에 5건이 넘게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다치거나 고립되는 것이다.

고립되거나 다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심에서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 동물들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선 어린 쇠백로가 등지를 잃고 미아 신세가 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쇠백로 떼 배설물 민원을 제기하자 등지가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와 수풀 정리 작업을 과도하게 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등지를 잃은 어린 쇠백로 62마리를 박스에 담아 구조센터에 전달했다. 이에 센터는 6주 동안 매 주 5회 이상 먹이를 주고 자연 환경과 유사한 재활훈련을 거쳐 지난해 4월 62마리 모두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변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켰다.

전남도 구조센터 역시 구조 건수(2019년 659건 → 2020년 813건 → 2021년 870건 → 2022년 851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 구조센터의 구조 사례중 조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구조센터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빨배 체험장'에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구조했다. 구조대원들이 가슴 장화를 입고 수리부엉이에 접근, 10분여간 사투를 벌인 뒤 겨우 포획에 성공했다. 당시 수리부엉이는 팔에 날개가 찢어 날지 못하는 상태였다.

구조센터는 수리부엉이가 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인한 '포획근병증' 발병이 우려돼 치료를 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3월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한 쇠백로 62마리를 자연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구조한 수리부엉이(왼쪽)와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재활 중인 새끼 고라니.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재활 중인 새끼 고라니.

뒤 구조된 장소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도심에서 야생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구조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보호장비 없이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면 안된다는 것이 구조센터의 설명이다. 또 새끼가 혼자 발견될 경우 어미가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성열 광주 구조센터장은 "구조돼 센터에 들

어은 동물 중 건물 방음벽 등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들어온 새들이 많은데 매니큐어 등으로 창문에 접착된 새들이 새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 구조센터는 올해 개소 4주년을 기념해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직접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전(120여점)을 개최한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광주시 지원 대상 확대

### 입양·증성화도 지원

광주시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첫 시행 이후 내장형 집을 활용해 새로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지원금을 분실 위험이 있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기로 했다.

1마리당 3만원, 1인당 3마리까지 지원하며 개는 물론 고양이도 해당한다.

광주동물보호소를 통해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입양비 지원 대상도 지난해 565마리에서 올해는 595마리로 늘었다.

또 실외에서 사육하는 5개월~6년령 '마당 개'의 증성화 수술 비용도 최대 36만원 지원한다.

올해는 선정 조건에서 체중을 제외해 다소 무거운 개의 증성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길고양이 증성화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된 동물보호단체가 시행하는 권역별 집중 증성화, 주민 민원에 따라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일반 증성화로 나눠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치매노인 교구 무료 대여 '기억키움 스토어' 운영

###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 1층에

광주서구청은 광주시 서구쌍촌동 서구치매안심센터 1층 심터에서 '기억키움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억키움 스토어에서는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인지강화 교구, 치매 관련 도서 등을 무료 대여해 준다.

스토어에는 자석칠교놀이, 구슬유희기 등 인지강화 교구 20종 74세트, 치매 관련 도서 32종 51권이 구비돼 있다. 치매노인부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까지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최대 4주 동안 교구 3세트, 도서 2권을 빌릴 수 있다. 대여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동구 22일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 개최

광주 동구청은 오는 22일 '2023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구의 미래를 위한 도시경관,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 동구만의 경관 계획 가이드라인과 설계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배용규 (사)한국경관학회장이 '더 나은 삶과 미래 가치로서 경관'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또 안장원 ㈜이음파트너스 대표가 '장소 명소화, 장소 브랜드'를 주제로 발표하고, 페드로 페레이라 성균관대 교수도 '사례를 통한 유럽의 도시

경관정비 사례'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남승진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배현미 목포대 교수, 신은주 (유)두다 대표, 유창국 목포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은 동구청과 (사)한국경관학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의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동구만의 경관계획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동구다운 도시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운영

### 광주시교육청, AI 등 5개 분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인권 분야를 시작으로 '2023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민주-인권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진로,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해 5개 분야 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5개 분야는 민주-인권·평화·역사, 인공지능(AI)·IT, 문화·예술, 진로·직업, 언어·일반 등이다.

8개 세부 프로그램은 '민주·인권' '평화·통일' '해외 역사·문화' '학생 디지털 리더' '해외 문화·예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리더십 캠프' '동북아 국제교류' 등이다.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참가 학생들은 지난 18일 프랑스와 스위스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공개 선발 과정을 통해 뽑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황룡강서 물고기 떼죽음

광주황룡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또는 집단탈진해 당국이 현장 조치에 나섰다.

1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황룡강 장죽고 일원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를 동안 잉어 등 대형 어종 20여 마리가 폐사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 배꼽거리는 물고기 100여 마리도 주변에서 함께 관찰됐다.

시민 제보를 받은 광산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했다.

당국은 1년기량 이어진 가뭄에 강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거나 탈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이 쓴

#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